

개념을 확 잡는

비문학 워크시트



《고교독서평설》의 읽기 자료를 활용한

비문학 확인 문제를 풀면서 문해력을 높이고 수능 국어 영역 실전에 대비하세요.

차례

인문·예술

- 1 손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 2 사랑이 모든 것은 아니리

사회·문화

- 3 금리가 오르는데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질까?
- 4 연세대학교
- 5 글루텐 프리는 프리할까?

과학·기술

- 6 육식을 포기할 수 있을까?
- 7 디지털 트윈은 플라톤을 꿈꾸는가?
- 8 오염된 담론은 의심으로 막는다

9 정답 및 해설

워크시트 활용법

- 1. 해당 코너를 꼼꼼히 읽고 내용을 숙지한다.
- 2. 코너 하단의 QR코드로 문제를 내려받는다.
- 3. 확인 문제를 풀며 문해력과 수능 감각을 끌어올린다.
- 4. 채점한 뒤 틀린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복습한다.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문화비평: 세상을 거슬러 읽다 | 본문 82p

1 해당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넣어 보자.

- (1) 반공은 국민을 통제하고 권위주의 정부를 유지하는 일에도 이용되었다. ()
- (2)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까지 7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다. ()
- (3) 1990년 '제주4·3사건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
- (4)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들은 모두 좌익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이다. ()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자.

- (1) 6·25전쟁 이후 분단이 고착하면서 대한민국은 ()을/를 국가 운영 기조로 삼아 왔다.
- (2) 우파 청년 단체인 ()은/는 1947년 제주 민중의 민관 총파업을 진압하는 데 동원되었다.
- (3) 일본인 제주도사가 이끄는 해녀조합의 횡포에 저항한 운동인 ()은/는 해녀들의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 (4)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의 유해 발굴을 진행하던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1961년 ()(으)로 물거품이 됐다.

제6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3 (가)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보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입니다.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가)의 와중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서 고통받으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보내는 편지」

- ① 6·3시위가 발생하였다.
- ② 애치슨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브라운각서가 체결되었다.
- ④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다.
- ⑤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금리가 오르는데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질까?

이제부터, 아는 금융 | 본문 98p

7 해당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넣어 보자.

- (1) 채권 가격이 올랐다면 금리 상승을 의심해야 한다. ()
- (2) 채권은 시장에서 거래한다. ()
- (3) 채권 가격이 바뀌는 이유는 금리의 변동뿐이다. ()
- (4) 채권은 애초 발행할 때부터 금리를 고정해 둔다. ()
- (5) 부도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은 이자율도 높다. ()

8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자.

- (1) 채권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 갚아야 하는 날짜, 얼마만큼의 ()을/를 받을지가 명시돼 있다.
- (2) 가장 일반적인 채권은 이표채이며, 이를 ()(이)라고도 부른다.
- (3)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이/가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 (4)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다.
- (5)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채권의 안정성을 대개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9 본문을 읽고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이 필요한 기업이나 나라에 돈을 투자하고 그 증표로 받는 것이 채권이다.
- ② 애초 이자율이 확정돼 변동하지 않는 증권이 확정이자부증권이라면 채권도 확정이자부증권이다.
- ③ 채권의 가격 변동은 상환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 ④ 채권투자로 이익 창출을 도모할 땐 약간의 위험성을 감수할 수도 있다.
- ⑤ 공기업은 국가자본으로 움직이므로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로 분류한다.

- (1) 연세로에선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
- (2) 2호선 신촌역의 예전 이름은 연대입구역이었다. ()
- (3) 언더우드관, 스팀스관, 아펜젤러관은 모두 사적으로 등재됐다. ()
- (4) 영빈 이씨의 묘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있다. ()
- (5) 연세대는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의 앞 글자를 딴 교명이다. ()

- (1) 1984년에 개통한 2호선 신촌역과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대학은 정문 기준으로 ()이다.
- (2) 연세로는 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 ()이다.
- (3) 연세대 학생회관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 (4) 풍수지리에서 화강암은 생태적으로 빈약한 (), 변성암은 생태적으로 안정된 ()으로 읽는다.
- (5) 설립자의 이름을 딴 언더우드관은 연세대의 전신인 () 시절인 1925년에 준공했다.

- ① 1885년 미국 선교 의사 알렌이 조선 정부에 건의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다.
- ② 제중원의 원래 이름은 광혜원이었다.
- ③ 제중원에서는 학생을 선발해 의학을 교육했다.
- ④ 조선인들은 서양 의료를 낯설게 여겨 제중원을 찾지 않았다.
- ⑤ 제중원은 설립한 지 9년 만에 경영권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로 이관되었으며, 미국 사업가 세브란스의 재정 지원으로 현대식 병원을 지어 세브란스병원이라 하였다.

글루텐 프리는 프리할까?

우리의 지속 가능한 식탁을 위해 | 본문 114p

13 해당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넣어 보자.

- (1) 글루텐은 반죽을 쫄깃하게 만들고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
- (2) 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10~13%로 만두, 국수 등을 만들 때 사용한다. ()
- (3) 글루텐은 셀리악병을 일으킬 수 있다. ()
- (4) 글루텐 섭취를 피하려면 밀가루만 조심하면 된다. ()
- (5) 식사 후 극심한 피로와 졸음이 찾아오거나 허기를 느낀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야 한다. ()

14 <보기>는 본문에 나온 글루텐 프리를 자세히 설명한 글이다. <보기>와 본문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잘못 말한 사람은?

보기

글루텐을 함유한 식품들(피자, 빵, 햄버거 등)이 체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체중증가의 범인을 글루텐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식품들은 열량 및 지방함량이 높기에 글루텐의 유무와 상관없이 체중을 증가시킨다. 즉 글루텐을 함유한 고칼로리·고지방 탄수화물 식품과 가공식품 대신 콩류, 견과류, 씨앗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글루텐 프리 쿠키, 파스타, 빵을 섭취한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글루텐 프리 제품들은 일반 제품에 비해 설탕과 지방을 더 많이 첨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량과 지방함량이 높고 섬유소 함량은 낮다. 실제로 미국영양학회(ASN) 논문에서는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가 체중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어떤 연구에서는 지방변증(대변에 과량의 지방이 존재하는 상태)을 지닌 과체중 및 비만 환자가 글루텐 프리 식사를 한 뒤 체중이 증가했다. 따라서 체중감량을 위해 단순히 글루텐 프리 제품을 섭취한다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고 여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① 다니: 환자가 아닌 일반 사람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글루텐 프리 식사를 하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겠어.
- ② 헤인: 귀리음료를 마셔도 글루텐을 섭취하게 되는구나.
- ③ 하니: 글루텐 프리 식품은 글루텐을 섭취하면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먹는 게 바람직하겠어.
- ④ 민자: 글루텐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가 우리나라에는 극히 드물구나.
- ⑤ 해린: 글루텐 프리 제품들은 일반 제품에 비해 설탕과 지방을 덜 넣는군.

육식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의심이 물고 사실이 답하다 | 본문 120p

15 해당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넣어 보자.

- (1) 세계 곳곳에서 채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
- (2) 축산업은 온실기체가 많이 발생케 한다는 점에서 그 지속가능성을 촉망받는다. ()
- (3) 인류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영장류는 침팬지다. ()
- (4)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랭엄은 저서를 통해 인류 진화와 채식의 상관관계를 논했다. ()
- (5) 싱가포르는 2020년 배양육 닭고기 시판을 승인했다. ()

16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자.

- (1) 육식을 혐오하는 이는 대개 좁은 ()에 동물을 가두고 도축하는 관행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 (2) 호모사피엔스는 침팬지와 ()년 전에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기하여 진화했다.
- (3) 식물단백질은 동물단백질보다 ()이/가 낮다.
- (4) 인류는 채식과 육식을 적절히 섞어 먹는 ()에 최적화된 동물이다.
- (5) 소는 ()(이)기에 사료 섭취 및 소화과정에서 메탄이 많이 발생한다.

17 다음 중 본문을 읽고 <보기>의 ㉠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보기

㉠배양육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일만 가능해진다면 축산농가에서 동물을 사육해 얻은 고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 ① 재만: 현재 ㉠을 만드는 기술은 현실화했어.
- ② 세윤: ㉠은 비록 실제 동물 고기보다 안전하지 않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
- ③ 명우: ㉠을 소재로 한 드라마까지 나왔다고 하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인 듯해.
- ④ 주원: 언젠가는 ㉠ 때문에 먹거리의 계급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
- ⑤ 기현: 지금은 ㉠이 널리 상용화하지 않았으니, 환경을 위해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겠어.

18 해당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넣어 보자.

- (1) 모든 전자·중성자·양성자는 같은 전하량을 가진다. ()
- (2) 현재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동물실험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
- (3)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를 지구가 $9.8\text{kg} \cdot \text{m/s}^2$ 의 힘으로 끌어당기면, 이 물체의 질량은 1kg 이다. ()
- (4) 인류의 첫 번째 프로그래머는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남성 과학자다. ()

19 <보기>는 ‘동물실험은 중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한 것이다. 토론의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반대 1: 저희도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물실험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유용하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습니다. 가령 1885년 파스퇴르가 동물실험을 통해 광견병백신을 발견해서 인간뿐 아니라 개도 광견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동물실험의 유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 인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동물실험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 2: 동물실험으로 수많은 동물이 고통받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물실험을 중지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기술적 대안은 있습니까?

찬성 2: 인간 세포를 배양해서 활용한 실험이나 첨단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한 실험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동물실험을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대 1: 연구 중인 상황에서 무턱대고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 아닐까요?

찬성 1: 현재 개발단계이기에 아직 안전성에 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미 많은 대체 실험이 실용화 단계까지 왔습니다.

찬성 2: 동물들이 인간을 대체할 만큼 인간과 유사한 생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십니까?

반대 2: 동물실험에는 주로 쥐나 토끼, 침팬지와 같은 척추동물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인간과 아주 유사한 생체적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찬성 2: 동물과 인간은 생체적으로 차이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동물실험을 통과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 ① 찬성 측은 동물실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② 찬성 측은 동물실험이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③ 반대 측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④ 반대 측은 동물이 인간보다 육체적 고통을 덜 느낀다고 주장한다.
- ⑤ 반대 측은 일부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오염된 담론은 의심으로 막는다

수학이 그렇게 말했다 | 본문 134p

20 해당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넣어 보자.

- (1) 단순폐곡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곡선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
- (2) 단순폐곡선의 특성은 토러스 공간 위에서도 유효하다. ()
- (3) '확률이 0%인 사건은 불가능하다.'라는 명제의 역은 성립한다. ()
- (4) KFC 창립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헤네시 코냑 창립자보다 일찍 죽었다. ()
- (5) 필자는 과장된 거짓 정보의 증가가 바이러스 전염만큼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2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자.

- (1) 단순폐곡선은 공간을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 (2) 0.999...와 1이 같다는 사실은 고등수학 분야 가운데 ()을/를 통해 엄밀히 확인할 수 있다.
- (3) 필자는 수학에서 얻을 수 있는 ()(으)로 판단을 유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 (4) 필자는 소문에 허구가 추가되고 사소한 디테일이 부풀려지는 일을 ()에 빗대어 표현한다.
- (5) 필자는 사회의 지적 나태가 집단적 혐오, 반지성주의, ()의 뿌리라고 말한다.

22 본문을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이다. 필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문장은?

①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당연한 일도 한 번 더 의심해서 엄밀한 답을 찾아낸다는 말과 같다. ② 그러므로 수학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신중함이라는 필자의 말에 동의한다. ③ SNS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담론들 역시 작성자가 충분히 신중한 사고를 거친 끝에 작성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 ④ 상대 진영의 사람이라면 무조건 나쁘게 바라보는 혐오의 정서는 거짓 정보를 양산하고, 이는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⑤ 따라서 우리는 판단의 '소독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분함과 치밀함, 겸손함 등을 수학을 통해 익혀야 할 것이다.

인문·예술

- 1
 - (1) ○
 - (2) ○
 - (3) ×, '제주4·3사건 특별법', 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2000년이다.
 - (4) ×, 국민보도연맹 교육의 대상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로 좌익 사상을 따르던 이들도 있었지만,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한 이도 많았다.
- 2
 - (1) 반공
 - (2) 서북청년회
 - (3) 제주 해녀 항일운동
 - (4) 5·16군사정변
- 3

⑤

[해설] 좌익 혐의를 내세워 무고한 사람들까지 집단 학살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6·25전쟁 초기에 발생했다. 따라서 (가) 전쟁 중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1950년 9월 맥아더의 지휘 아래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전개한 인천상륙작전이다. ① 한일회담의 재개에 반대하며 일어난 6·3시위는 1964년의 일이다. ②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 방위선인 애치슨라인을 선언한 것은 1950년 1월의 일이다. ③ 한국의 베트남전쟁 추가 파병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및 경제원조를 약속하는 브라운 각서를 체결한 것은 1966년의 일이다. ④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것은 1979년의 일이다.
- 4
 - (1) ×, 왕순은 현정왕후와 왕건의 여덟째 아들 왕욱 사이에서 태어났다.
 - (2) ×, 경종이 죽은 뒤 천추태후는 천추전에서, 동생인 현정왕후는 궁 밖에서 살았다.
 - (3) ○
 - (4) ○
- 5
 - (1) 시왕사
 - (2) 인사권
 - (3) 김춘추
 - (4) 예부시랑
- 6

②

[해설] ② 강조가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즉위시킨 뒤, 거란은 아를 구실 삼아 1010년 고려를 침략했다. 개경이 함락되자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했다. 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광군을 조직한 해는 947년이다. ③ 서희가 외교담판을 벌여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거란의 1차 침입 시기인 994년이다. ④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한 적개심으로 거란이 선물한 낙타를 만부교 다리에서 굶겨 죽인 만부교사건은 942년의 일이다. ⑤ 후주가 건국되고 고려가 후주와 통교한 것은 950년대의 일이다.

- 7 (1) ○
(2) ○
(3) ×, 채권 가격은 금리 변동뿐 아니라 채권상환일, 채권발행 기업의 안정성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4) ○
(5) ×, 부도 위험이 큰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이 더 높은 편이다.
- 8 (1) 이자
(2) 쿠폰채
(3) 안정성
(4) 회사채
(5) 18
- 9 ⑤
[해설] 중앙정부에서 국가 이름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 칭하고, 이밖에 각종 공사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회사채로 분류한다.
- 10 (1) ×, 연세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일반 차량만 진입이 금지되며 대중교통은 이용이 가능하다.
(2) ×, 1984년에 2호선을 개통할 때부터 신촌역이었다.
(3) ○
(4) ×, 영빈 이씨의 묘는 원래 광혜원과 루스채플 자리에 있었으나, 1969년에 묘를 경기 고양시 서오릉으로 옮겼다.
(5) ○
- 11 (1) 서강대
(2) 대중교통전용지구
(3) 프리캐스트콘크리트
(4) 골산, 육산
(5) 연희전문학교
- 12 ④
[해설] 제중원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환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에 여러 선교 의사가 들어와 환자를 진료했다.
- 13 (1) ○
(2) ×, 강력분은 글루텐 함량 13% 이상으로 빵이나 피자도우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
(3) ○
(4) ×, 글루텐은 밀, 보리, 귀리, 호밀 등 여러 곡물에 들어 있다.
(5) ○
- 14 ⑤
[해설] 글루텐 프리 제품들은 일반 제품에 비해 설탕과 지방을 더 많이 첨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량과 지방함량이 더 높다.

- 15 (1) ○
 (2) ×, 축산업은 지구에 악영향을 끼치는 온실기체를 많이 발생시키므로 지속가능성을 의심받는다.
 (3) ○
 (4) ×, 리처드 랭엄은 저서에서 인류의 진화가 육식과 관계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5) ○

- 16 (1) 축사
 (2) 500만~700만
 (3) 인체 흡수율
 (4) 잡식
 (5) 반추동물

- 17 ②
[해설] 배양육은 실제 동물 고기보다 안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대량생산이 어려워 가격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력이 낮다.

- 18 (1) ○
 (2) ×,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험동물에 관한 여러 규정을 만들어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강력히 규제한다.
 (3) ○
 (4) ×,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영국의 여성 과학자다.

- 19 ⑤
[해설] ① 찬성 2의 세 번째 발언 “실제로 동물실험을 통과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습니다.”에서 찬성 측에서는 동물실험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찬성 1의 첫 번째 발언 “동물실험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에서 찬성 측에서도 동물실험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반대 1의 첫 번째 발언 “저희도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에서 반대 측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생명 또한 존중되어야 함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찬성 1이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는 존재”라는 점을 들어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자, 반대 2는 “동물실험으로 수많은 동물이 고통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없음을 반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동물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 (1) ×, 단순폐곡선의 특징은 곡선이 닫혀 있다는 점, 곡선이 교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 단순폐곡선은 토러스 위에서 ‘공간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라는 특성을 잃는다.
 (3) ○
 (4) ×, KFC 창립자 두 명은 모두 90세 넘어 사망했으며, 헤네시 코냑 회사 창립자는 76세에 사망했다.
 (5) ○

- 21 (1) 2
 (2) 해석학
 (3) 신중함
 (4) 돌연변이

(5) 중우정치

22 ③

[해설] SNS에 떠도는 글은 그 진위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하게 의심하여 받아들이 필요가 있음을 필자는 수명과 관련한 글을 예시로 들며 설명했다.